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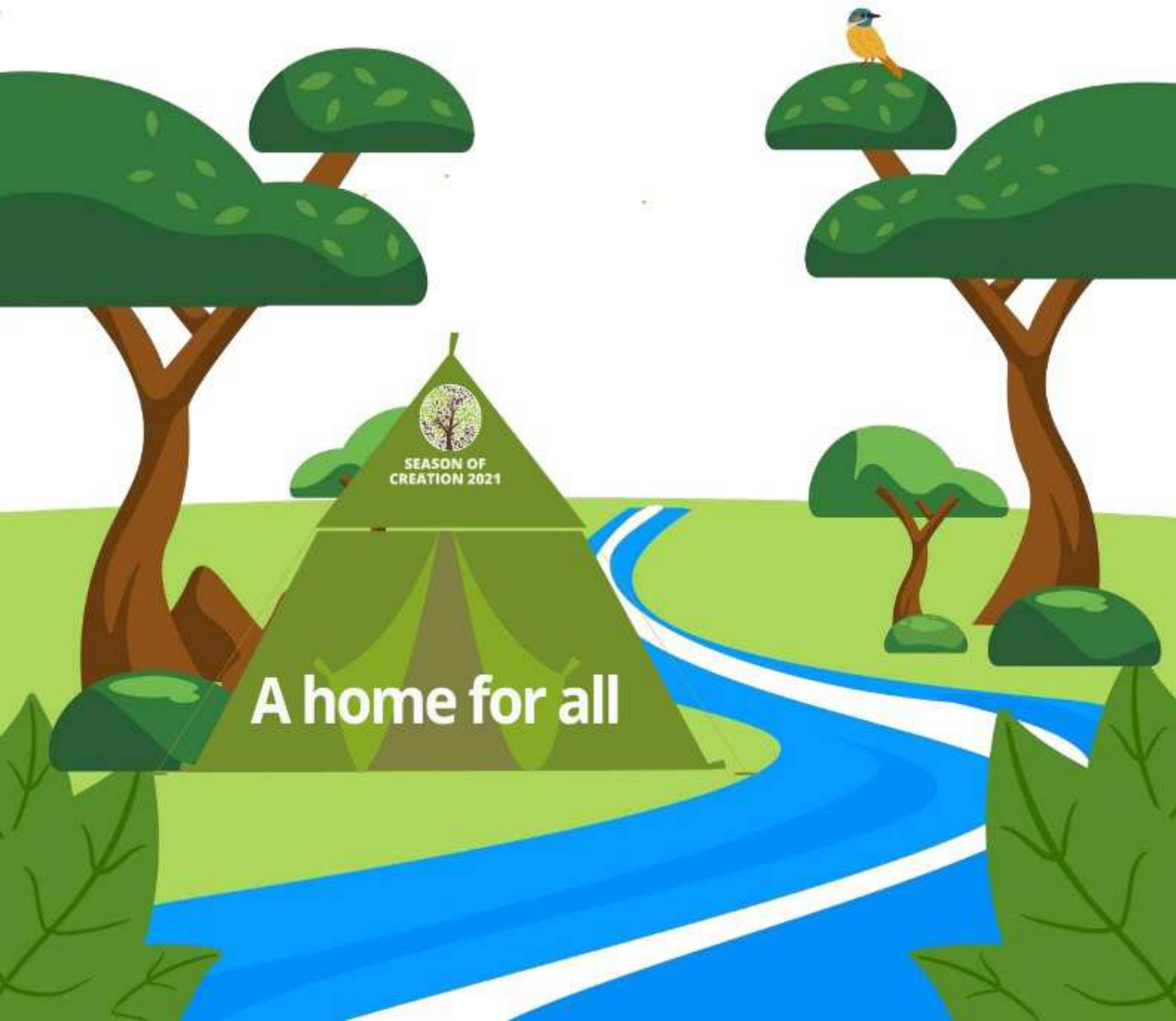


**SEASON OF  
CREATION**

2021년 창조절 안내서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며’



**A home for all**

## 목차

서문 / 3

창조절로의 초대 / 4

2021년 창조절 주제 / 6

2021년 창조절 기도문 / 8

2021년 창조절 상징물 / 9

창조절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 / 11

- 창조절을 위한 기도회 / 13

- 지지와 연대 활동 / 17

- 세계 창조절 행사 / 21

창조절에 관하여 / 22

별첨 자료 1 : 창조절 예식서 / 24

별첨 자료 2 : 지구 목상을 통해 지역 생태계와 관계 맺기 / 34

별첨 자료 3 : 창조절 행사 체크리스트 / 36

별첨 자료 4 : 창조절 주제에 따른 성경읽기 / 38



## 서문

창조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저마다의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 모두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도와 행동을 함께해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는 창조세계의 평안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창조세계 모두의 집과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자매와 형제들을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창조절 주제는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 :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며" 입니다. 창조절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에 관해 이 안내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화상세미나, 화상기도회, 페이스북, 그리고 사진 등 다양한 도구와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창조절 홈페이지 ([www.SeasonOfCreation.org](http://www.SeasonOfCreation.org))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에큐메니칼 운영위원회



## 창조절로의 초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여러분,

9월 1일부터 10월 4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된 우리가 창조세계라는 선한 선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조세계를 기념하는 일은 1989년 당시 동방정교회의 세계 총대주교께서 창조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시면서 시작되었고, 이제는 에큐메니칼 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일구는 사역에 힘을 북돋고 우리의 의식을 한 단계 올려주는 강력한 체험이자 도구입니다.

올해 창조절의 주제는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며”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적, 우주론적 지평을 넓히고, 성경 본문에서 가르침을 얻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집(Oikos)’에서 성경, 생명체, 지구를 모두 볼 수 있는 새 길을 닦으며, 또한 우리의 세상이 상호 연결되면서도 상호 의존하는 사랑받는 세계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궁창, 어떤 영역에서는 '돔(dome)'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dome' 이라는 단어가 바로 'domicile(거주지)', 'domestic(가정적)'의 어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람은 물론 다른 모든 생명을 한 지붕 아래에 두시고,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세계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세계를 돌보고 가꾸라는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받는 공동체'라고 불렀는데, 이는 모든 생명체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동등한 구성원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세계는 창조세계 모두의 집이 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탐욕, 착취, 존중의 부재, 관계의 와해, 그리고 구조적인 자연 파괴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창조세계 모두가 오늘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을 깨닫게 하는 영역이 점점 줄었습니다. 오늘날 지구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창조세계가 사랑받는 공동체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애써 부인하고 있을 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다시 제자의 길을 걷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삶에서 계획이나 지적인 배움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선지자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행동과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세계인 사랑의 공동체에서 모든 생명을 위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절 운영위원회 일동

Bishop Marc Andrus, Episcopal Diocese of California Rev. Dr Dave Bookless, A Rocha  
Rev. Ed Brown, Care of Creation and Lausanne Catalyst for Creation Care  
Dr. Celia Deane-Drummond, Director, Laudato Si' Research Institute, Campion Hall, University of Oxford  
Msgr. Bruno-Marie Duffé, Secretary, Vatican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Rev. Norm Habel, Season of Creation Project, Adelaide  
Bishop Nick Holtam, Bishop of Salisbury, Church of England Environment Working Group  
Dr. Hefin Jones, Executive Committe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Metropolitan of Zimbabwe Serafim Kykotis, Greek Orthodox Archbishopric of Zimbabwe and Angola  
Archbishop Mark Macdonald, National Indigenous Anglican Bishop, Anglican Church of Canada  
Fr. Martin Michalíček, Secretary General, Consilium Conferentiarum Episcoporum Europae  
Mr. Marcelo Leites, General Secretary,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Sr. Patricia Murray, Executive Secretary, International Union Superiors General  
Dr. Alexandros K. Papaderos, Advisor of the Ecumenical Patriarchates of Constantinople  
Dr. Paulo Ueti, Theological Advisor & Latin American Regional Director, Anglican Alliance  
Dr. Ruth Valerio, Director Global Advocacy and Influencing, Tearfund



## 2021년 창조절 주제 :

###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며

매년 에큐메니칼 창조절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해 창조절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2021년 주제는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며’로 정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피조물이 한 지구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고백이고, 둘째는 이 공동체가 모두 창조주에게 속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지구공동체를 뜻하는 단어 ‘오이코스(oikos)’는 ‘오이코우메네(oikoumene)’, 즉 ‘에큐메니칼(ecumenical)’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오이코스’를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에서 ‘우리 공동의 집’, 즉 ‘모두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 오이코스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창조절 주제를 오이코스라는 개념 위에 세움으로써 이 지구가 건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필요한지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생태계를 뜻하는 단어 ‘오이콜로기아(oikologia, ecology)’는 동물과 식물은 물론 의식이 없는 생물과 무기물 사이의 관계까지 뜻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랑의 공동체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명으로 구성된 생태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건강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있는 각 피조물이 제 역할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람도 이 지구 공동체에서 다른 존재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지구와 같은 원소로 그 몸이 이루어져 있고, 이 땅과 그 안에 사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돌봄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오이코노미아, oikonomia), 사회, 그리고 정치로 인해 창조세계의 균형이 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결국 지구로부터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광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지 간에 사람이 만들고 쓰는 모든 것은 원래 지구에서 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와 재화를 소비하는 습관은 전 행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가 스스로 치유하고 생명을 유지할 있는 능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사람의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 이외 하나님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유독 사람에게 오이코스를 일구고 돌보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시다.

정의로운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관계들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이성,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죽어있는 세상이 아니라 살아있고 역동적인 피조 공동체의 청지기이

며, 우리 스스로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땅과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선물로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소중한 물건처럼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조건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이성을 활용해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행성이 가진 생태학적 한계를 파악해 그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경제와 기술, 그리고 정치체제를 만드는데 이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자연 질서와 작용들, 대대로 내려오는 삶에 터전에서 고유한 전통으로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들, 그리고 말씀과 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 세기 동안, 인류는 지구의 한계가 아닌 시장 논리에 따라 삶과 경제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 그릇된 논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착취하고 피조물을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듭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땅, 식물, 동물, 광물을 지금처럼 마구 사용하면 기후 분쟁, 손실, 피해로 인해 거주지가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백만 종의 생물이 서식지를 잃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인류 때문에 생태계가 침범당하는 이 시대에 생태계와 사회를 무너뜨리고 배척하는 일이 현재의 기후 위기를 야기하고 생태적 불안정성을 가속화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 해답을 찾고, 생명의 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지구와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계속 새롭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소망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고 돌보라는 태초의 소명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었습니다. 즉, 전 지구를 새롭게 하여 그 안에 충만한 모든 피조물에게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모든 피조물 간에 정의로운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이번 창조절을 계기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뜻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동안 왜곡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체제로부터 회개하고 이를 변화시켜 창조세계 모두의 집인 지구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생명의 세계를 만들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이 융성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그의 세계를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세례와 함께 받은 이 부르심 앞에서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응답하여 전 교회가 또 다시 일치를 이루는 창조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2021년 창조절 기도문

만유의 창조주시여,

사랑의 친교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거룩한 지혜로 지구를 만드셨고, 다양한 생명체를 창조하시어 흙과 물, 대기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모습으로 당신을 찬양하고,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서로서로 이 삶을 돌봅니다.

우리는 시편 저자와 같이, 당신의 집에서는 “참새도 깃들고, 제비도 새끼 칠 집을 연습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인간을 부르시어 지구에서 각 피조물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그들의 터전이 늘 생명의 풍요로움을 보존하도록 당신의 정원을 가꾸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지니고 싶어 지구가 자신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생력과 조화를 이루지도 않고, 순환에 맞추어 소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식지는 척박해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생태계는 무너졌습니다. 한때 생명과 유대관계로 가득했던 암초와 동굴, 높은 산과 깊은 바다는 건조한 사막이 되어 마치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비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함과 분쟁으로 인해 평화를 찾아 이주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화재, 벌목, 기근을 피해 새끼를 낳고 살아갈 거주지를 찾아 낯선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창조절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탄생과 세례의 물과 같이, 당신의 창조의 숨결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공동체에서 저희가 올바른 자리를 찾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저희를 비추시어, 당신의 계약과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흥겹게 하시어, 저희가 이곳을 일구고 돌보며 성령과 함께 모든 이를 위한 집을 지키고 당신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해야 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2021년 창조절 상징물 : ‘아브라함의 천막’

올해 창조절의 상징물은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이라는 뜻을 담아 아브라함의 천막으로 정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세 명의 나그네에게 자신들의 천막을 열어주어 집처럼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 나그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창세기 18장)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집을 만든 이 두 사람의 놀라운 환대의 행위는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천막은 급진적인 환대의 행위로서 창조세계의 돌봄을 실천하는 에큐메니컬 소명과, 하나님의 집, 우리 모두를 위한 집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상징합니다.



이번 창조절에 ‘아브라함의 천막’을 교회 정원이나 마당에 세움으로서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한 환대의 상징으로 삼을 것을 제안해봅니다. 공동체의 약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공동체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창조세계의 일부를 천막 안으로 갖고 와서 이를 곁에 두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천막은 창조절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예배나 각종 행사 때에 모든 이들을 위한 집을 만들려는 여러분의 의지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천막은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환영받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면으로 입구가 나 있었을 것입니다. 천막은 종종 대화의 상징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종교 전통들 사이에서 그렇게 활용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종교와 학제 간의 노력을 통하여 대화와 분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천막은 쉼터 또는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노숙인, 피난민,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 이주해야 하는 기후난민들과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전(오이코스)에서는 “참새들도 집이 있고, 제비도 알을 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가운데 천막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천막이라는 상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사람 가운데 거하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또 우리 신앙은 우리 모두의 집을 계속 일구고 가꿈으로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천막은 또 단순함의 표시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천막과 배낭은 본질적인 것, 충분한 것,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 짐을 가볍게 지니고 세상을 여행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유목민들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땅의 선함에 의지하고, 순환을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살았기에 취약함(vulnerable)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천막은 우리가 인생을 거쳐 가는 동안 반드시 지구에 빛을 비추는 발자국을 남겨야 함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례자의 표시입니다.



## 창조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

이번 창조절은 창조주 하나님은 물론 다른 피조 세계와 관계를 새롭게 할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념(celebration), 회심(conversion), 그리고 약속(commitment)’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조절은 에큐메니칼 절기로서, 해마다 세계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하나 된 가족으로서 창조세계 모두의 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시기입니다. 창조절을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단체인 창조절 네트워크에서 그 중 몇 가지를 아래처럼 제시하였는데, 홈페이지([www.SeasonofCreation.org](http://www.SeasonofCreation.org))를 방문하면 더 많은 절기 활동이나 실천운동, 특히 교단별로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활동 방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절 관련 행사를 계획하실 때 창조절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이를 등록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등록하신 활동들은 세계 창조절 지도에 표시되어 여러분의 행사 또는 기타 창조절 관련 행동에 다른 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진과 동영상

여러분 공동체가 행동하는 모습은 꼭 사진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는 사진은 전 세계 모든 이들과 공유될 것이고, 창조세계를 지키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촉구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사람의 사진은 찍으시기 전에 당사자 허락을 구하시고, 어린이의 모습은 보호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지 않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공유하실 사진은 창조절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SNS 또는 블로그

창조절을 지키기 위한 행사 계획 또는 진행 단계 때 관련된 사진과 글을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절 홈페이지에도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트위터나 기타 SNS에 게시물을 올리실 때 #SeasonofCreation이라는 해시태그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절을 지키는 교회들의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영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절을 지키신 것에 관한 블로그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 기도와 예배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령의 새로운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절 중 기도모임 또는 예배를 진행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 에큐메니칼 기도회 개최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은 창조절을 지킬 수 있는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절기를 통해 각 교단 또는 연계 단체들 바깥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교회에서는 인근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중에서 여러분의 소속 교단과 다른 교단에게 연락하여 창조절을 기념하기 위한 연합 기도회를 조율하고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메일로 소통하실 때는 창조절에 관한 정보와 창조절 홈페이지 링크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주제를 고려하여, 이번 창조절에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와 참여도 이끌어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것은 없는지 생각해볼 것을 권합니다.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도움을 보내기 위해 목적 헌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행사에 필요한 점검목록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나 기도회에 관해 참여하는 모든 단위에 서 홍보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SNS나 인쇄물, 또는 디지털 홍보물을 이용해 보다 넓게 광고하면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보다 역동적인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 전단지, 주보, 그리고 예배 광고의 예시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회 진행자로는 참여하는 교회에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목사 또는 사제가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도회 예시문은 2021년 창조절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활용하셔도 좋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바꾸어 활용해도 좋습니다.

## 창조절을 위한 기도회

올해의 창조절 주제,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을 기초로 에큐메니칼 실무진에서 다음 기도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기도서가 여러분의 신앙공동체에서 절기의 시작과 끝을 기념하는 기도회나, 절기 도중에 있는 행사, 또는 절기 동안 주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2021년 창조절 기도서는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교회 전통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이 맥락에서는 '민족' 또는 '족속'이라는 표현이 비단 인간의 족속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모든 생물의 종과 무기체들은 물론 하늘의 별들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사람들의 족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족속, 다리가 네 개 달린 생물들의 족속, 하늘을 나는 족속, 물을 헤엄치는 족속, 바위 족속, 별들의 족속, 그리고 더 많은 족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족속'이 살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회를 계획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위한 집을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의 뜻을 담아 기도회 장소에 '아브라함의 천막'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 있는 대지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이 땅을 '집'으로 삼으며 여러분과 더불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족속'을 상징할 수 있는 자연물을 기도회장에 비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서 창조절 홈페이지로 가지거나 이 안내서의 부록을 보시면 기도회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easonofcreation.org/wp-content/uploads/2021/04/2103-Season-of-Creation-OIKOS-readings-1.pdf>

## 창조 관련 주제와 아브라함의 천막을 주일 예배에서 다루기

창조 관련 주제나 아브라함의 천막을 주일 예배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창조절 동안 여러분 공동체의 목회자/사제에게 창조에 관한 설교를 하거나 창조와 관련된 주제를 기도 또는 성경공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주 성구집을 통해 창조절과 관련 주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는 창조절 각 주에 활용할 수 있는 구약, 시편,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 본문을 수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의 웹사이트로 가면 주일 예배에 창조절을 녹여낼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ustainable-preaching.org/sermon-suggestions/>

창조의 주제가 예배의 각종 순서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령, 성찬, 헌금, 특송, 기도, 어린이 예배 설교, 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모든 존재에 대한 환대의 표시로 ‘아브라함의 천막’을 교회나 교회 정원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공동체의 약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공동체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텐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가정을 만들려는 공동체의 의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창조의 시즌 내내 예배나 행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야외 예배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 예배를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을 예배당으로 삼는 것인데, 이미 창조세계는 모든 피조물과 산과 강물과 나무가 주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신 그 나뭇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피조물을 선택하여 그곳에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절경이 있는 곳이라면, 이에 대한 감사와 그 장소를 비롯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약속에 예배의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고, 환경이 파괴된 곳이라면 환경에 대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행동의 약속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 각 교회에서 평소에 예배하는 방식이나 날씨에 따라서는 간소화된 예배순서 또는 성찬식을 이 안내서에 담긴 에큐메니칼 기도회와 결합하거나 기타 창조 관련 예전과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헌금 기도를 진행할 때 유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야외 공간에 있는 상징적인 물체를 강대상에 갖고 와 ‘땅을 일구어 얻은’ 소출로 떡과 포도주 옆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 창조세계가 부르는 경배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무언으로 참여하기 위해 잠시 침묵으로 있는 순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설교나 강론 대신 소그룹으로 나누어 짙막한 말씀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외된 모든 존재에 대한 환대의 표시로 ‘아브라함의 천막’을 교회나 교회 정원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공동체의 약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공동체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텐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가정을 만들려는 공동체의 의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창조의 시즌 내내 예배나 행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창조세계 순례 또는 걷기

야외에서 걸으며 진행하는 관상기도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창조세계에 관해 묵상하고, 이에 화답해 모든 생명과 더 깊은 교제에 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장소나 생태 또는 사회적 불의에 관해 증언하는 장소로 순례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 중에 생태적 주제를 담

은 성서 본문을 공부할 수도 있고, 생태적 묵상기도(다음 링크 참고)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순례 끝에는 기도회를 진행하거나 지구묵상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X53spMlbd7pasdkw-xIALTPoPKPKSk8p/view>

## 지구 묵상기도(Earth Examen)를 통해 지역 생태에 함께하기

묵상기도는 특정한 사물을 바라보거나 기도자의 놀라움 가득한 자세로 어느 상태에 온전히 정신을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일련의 질문을 통해 주님의 임재에 관해 성찰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에 담긴 선함을 생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창조절에는 여러분 주변 생태계를 대상으로 묵상기도를 해보십시오. 이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묵상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자연환경 또는 농촌지역을 하나 고르십시오. 숲이 될 수도 있고, 강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녹지가 있는 도시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심 공원이나 농부의 밭도 가능하고, 언덕 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장소 또는 그 주변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드리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준비가 끝나셨다면, 다음의 링크 또는 본 안내서 부록에 있는 기도문을 통해 지구묵상기도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생활

### 개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생활형태 만들기

창조절은 우리의 생활방식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기를 약속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단 몇 개 영역에서 실천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단순하게 살자”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한 생활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지구가 만물의 집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 다음 링크에 있는 것과 같은 계산기를 사용하여 각자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십시오.

<https://www.footprintcalculator.org/>

- 창조절 ‘지속가능한 삶 챌린지’에 동참하십시오. 여기에는 매주 식습관, 에너지소비, 소비, 그리고 이동수단과 관련된 주제로 실천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창조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공동체에서 작은 모임을 형성해서 같이 기도하고, 성찰하며, 서로를 격려해보십시오.

## 제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변화 만들기

제도적 수준에서의 변화는 아주 효과를 발휘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눈에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제작한 '생명의 경제 및 생태 정의와 관련하여 회중들, 공동체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하여 우리가 신앙공동체로서 주변의 경제적 상황과 생태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을 변화시키십시오.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programmes/diakonia/economy-of-life/roadmap-for-congregations-communities-and-churches-for-an-economy-of-life-and-ecological-justice>

-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시설에 대한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면 당장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실천사항을 많이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냉·난방, 조명, 통풍, 그리고 보온의 실태를 조사하면 좋습니다.

<https://www.churchofengland.org/about/policy-and-thinking/our-views/environment-and-climate-change/about-our-environment/energy-footprint-tool>

- 많은 교회 연합단체들에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변화를 뜻하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회중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A Rocha에서는 Eco-Church라는 지원 체계를 발전시켰고, 미국성공회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가톨릭 기관들과 가정들이 각자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여러 영역에 걸쳐 행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https://ecochurch.arocha.org.uk/>

<https://www.sustainislandhome.org/>

<https://laudatosiactionplatform.org/>





## 지지와 연대 활동 : 생태적 회복을 촉구하는 운동에 참여하기

2021년 창조절의 주제는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 하나님의 세계를 새롭게 하다’입니다. 이 주제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범세계적인 부름과도 일치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지구공동체의 일원이고, 이 전 공동체는 창조주께 속하였으며, 이러한 전 피조물의 집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돌보는 것이 청지기 된 우리들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은 ‘Super Year’ 즉, 특단의 한해라고 부르는 한 해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두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이 요구되는 한 해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집인 전 세상에 그 여파가 미친 질병의 대유행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인간의 관심과 협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들입니다. 이미 여러 과학적 연구보고서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질병이 다시 발생할 확률은 높일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감한 행동계획을 설정하고 두 번이나 열릴 유엔기후변화당사국협약(UNCOP)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 협상을 통해 행동의 기운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두 회의 중 10월에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생물다양성을 논의하고, 11월에 열리는 두 번째 회의는 기후변화를 논의합니다.

2021년 10월 11일에서 24일까지 생물다양성을 의제로 열린 첫 회의 COP15는 10년 전 아이치에서 설정한 생물다양성 관리 목표 달성에 실패한 지금, 2020년 이후를 위해 적용할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 워크를 논의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 1일에서 12일까지 진행될 COP26 회의는 기후변화를 논의할 것인데, 파리협약에 근거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발전시킨 새 국가행동계획을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개의 당사국 협약 회의가 다루게 될 심대한 위기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해법 역시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당사국 회의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 각각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늘날의 기후위기, 보건위기, 그리고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할 때 인권, 사회적 정의, 그리고 온전한 창조질서에 중점을 두고 행동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이윤보다도 사람과 지구와 자연전체, 생태계 보호를 더 우선시하는 행동계획을 세워야 함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정부의 행동계획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 정부는 더 이상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도록 약속해야 하고, 2030년도 이후부터는 생물다양성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 정부는 기온 상승을 1.5C 목표치로 제한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정책, 그리고 제도를 제정해야 합니다.

- 각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세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것과 친환경적이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하고 자연 생태계 보존 및 회복하는 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된 책임을 지되, 각 국가의 처지에 따라 차등의 책임을 적용한다는 'CBDR(공동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개념에 따라 기후위기 대처에 앞장서야 합니다.

- 각 탄소중립을 위해 자연에 기반 한 해법을 기후 행동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입게 될 선주민을 비롯한 지역 공동체 및 국가들의 생존력과 회복력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태계 보존과 회복을 기후 행동에 포함해야 합니다.

-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가난 또는 취약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기후 행동 기금이 빠른 시일 내에 상당히 증액되어야 합니다.

COP15와 COP26과 관련하여 각 정부에 촉구할 수 있는 추가 사항들은 창조절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행동하기

지금 이 시점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며 일어나 우리 모두의 집르 지키기 위해 과감한 행동 목표를 요구해야 하는 카이로스(kairos)의 순간, 즉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당사국 회의는 모두 창조절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점에서 연대 대응활동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의롭고 과감한 생물다양성 및 기후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세계 지지 및 연대활동이 있는데, 이를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연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 1.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 촉구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 COP26 회의가 열리는 날까지 '기후정의를 위한 기도와 실천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종교인들이 기후정의를 위해 행동하고 기도하도록 의지를 모으는 운동인데, 다음 링크에서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prayandact4climate.org/>

- COP 15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및 COP 26 기후 정상회의가 각각 열리는 날까지 진행되는 가톨릭 교회의 기후위기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행동촉구 성명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catholicclimatemovement.global/>

### 2. 지역의 활동에 동참하십시오.

-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교회 지도자, 국가 정부 및 입법 기관의 인사, 그리고 지역별 의사결정권자들의 선택이 기후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처럼 지역 및 국가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면 전 세계적인 차이도 빚어낼 수 있습니다. 해당 책임자들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대면 만남을 신청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알리세요.

- 기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을 담은 성명문을 작성해 보세요. 이러한 성명문을 창조절 동안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명백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성명문에 담을 수 있는 요점들은 창조절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SNS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성찰하며, 여러분이 기념하는 창조절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SeasonofCreation이라는 해시태그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면 이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은 창조절 홈페이지에도 나타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만든 창조절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도 구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조절 공개단체에도 가입해서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대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루터교 세계연맹에서 발간한 지침서, “기후에 관한 국가적 논의에 신앙인이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활동 방법을 (온라인, 오프라인, 고위급 모임 및 행사, 풀뿌리 모임 및 행사) 창조절 홈페이지 게시할 것입니다.

<https://www.lutheranworld.org/content/resource-critical-role-faith-actors-national-climate-debate>

### 3. 다른 단체의 활동과 연대하십시오.

-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알려진 전 세계적인 기후파업 운동에 젊은 사람들과 전 세대의 시민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대규모 연대활동은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변화가 시급함을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또는 가톨릭 청년들의 운동인 “찬미의 세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기후파업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위해 각 교회, 학교, 또는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도 좋을 것입니다.

<https://www.fridaysforfuture.org/>

Laudato Si’s Generation, <http://laudatosigeneration.org/take-action/>

### 4. 기관들의 투자 철회를 촉구하십시오.

- 화석연료의 사용을 인해 기후 및 생태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많은 기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생산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화석연료로부터 투자를 철회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에 동참하세요. 동참하실 수 있는 활동으로 Operation Noah’s Bright Now Campaign과 Big Shift Global Campaign이 있습니다.

<http://brightnow.org.uk/>

<https://bigshiftglobal.org/>

## 활동 경험을 공유하기

-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게시되는 우리들의 활동 이야기를 구독하시고, 여러분의 활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SeasonofCreation이라는 태그를 사용해 게시해주세요. 또한 이야기를 나눔을 통하여 서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페이스북 상으로 창조절 공개단체에 가입해주세요.
- 기후, 생물다양성,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여러분 공동체에서 겪은 변화들을 담은 사진이나 시, 또는 그림을 게시해주세요. 이를 통해 여러분 주변의 자연과, 창조세계와 여러분이 맺은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주세요.
- 여러분이 계획하거나 참여한 활동에 관하여 블로그 글을 게시해주세요. 또는 창조의 시간(Creation Time)이 여러분에게 갖는 의미에 관한 글을 게시해서 공유해주세요.



## 세계 창조절 행사

세계 기독교 공동체들은 각각 나름의 방법으로 창조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행사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들에 관한 정보를 창조절 홈페이지의 세계 창조절 행사 일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창조절의 시작과 끝에 총 두 번 있을 온라인 기도회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 9월 1일 : 창조세계의 날 / 창조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 기도회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천지창조의 날은 매년 창조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 세계교회협의회 (WCC), 그리고 많은 다른 지도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이를 기념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기독 지도자들은 아시시에 모여서 에큐메니칼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분들 모두가 천지창조를 기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도 진행될 이 기도회로 초대합니다.

창조절 홈페이지 (SeasonofCreation.org)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10월 4일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

많은 기독 전통에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피조세계를 보호하는 이들을 위한 귀감이자 모범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0월 4일이 이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이며, 창조절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으로부터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온라인상으 모여 성 프란치스코가 각자의 영적 순례와 창조절 한 달 동안 함께한 순례에 관해 성찰하는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기도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창조절 홈페이지나 SNS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SNS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세요

## 창조절에 관하여

창조절은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도록 초대받는 시간입니다. 이 전례 기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창조절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또한 유연한 예배 자료를 제공하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 역사

1989년 동방정교회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 1세는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2001년 유럽의 다른 주요 기독교 교회들이 이를 수용하였고,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기독교 교회들은 9월 1일에서 10월 4일을 “창조절”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 10월 4일은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로 그분은 ‘피조물의 찬가’를 지으셨고 생태 분야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모든 이의 주보 성인입니다.

2003년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 2007년 시비우에서 열린 제3차 유럽 에큐메니칼회의, 2008년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지난 몇 년간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자들에게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이 기념 시기를 지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운영위원회

환경 위기 해결의 필요성이 계속 시급하게 대두되면서 기독교 교회들은 하나로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창조절 에큐메니칼 운영위원회가 함께 모여 자료를 제공하며, 기독교인들이 각 교파나 공동체의 방법으로 신앙에 응답하는데 힘을 더해주고, 이 시기동안 성찰과 행동을 공유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세계교회협의회, 루터교 세계연맹, 바티칸, 세계복음주의연맹, 세계가톨릭기후행동, 성공회연합 환경네트워크, 로잔 피조물돌봄네트워크, 개혁교회세계연맹, 유럽기독교인환경네트워크, ACT Alliance and Christian Ai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네트워크인 운영위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대화”와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지지받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긴급한 요청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 안내서의 기획, 작성, 검토, 그리고 교정에 힘을 실어주신 다음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Rev. Dr Louk Andrianos, World Council of Churches

Rev. Dr Dave Bookless, A Rocha

Rev. Joann Conroy, President American Indian Alaska Native Lutheran Association and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Cecilia Dall'Oglio,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

Stephane Gallay,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Rev. Henrik Grape, World Council of Churches

Fr. Joshtrom Kureethadam,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Christina Leano,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

Rachel Mander, A Roc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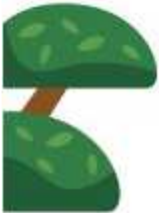
Rev. Dr Rachel Mash, Green Anglicans/Anglican Communion Environmental Network

Jo Mountford, Christian Aid

Rev. Dr Peter Pavlovic, European Christian Environmental Network

Rev. Dr Chad Rimmer,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Gabriel Lopez Santamaria,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



## 별첨 자료 1 : 창조절 예식서

###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

다양한 에큐메니칼 예배자료를 인용하였지만, 여기 기도문은 특히 아메리카 선주민 전통의 기도를 많이 참고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전통에서는 “종”이라는 단어가 비단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종과 무기질, 심지어는 하늘의 별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인간 종이 있는가 하면, 식물 종도 있고, 다리 네 개 달린 종도 있고, 하늘을 날거나 물속을 헤엄치는 종, 바위 족속, 별들의 종, 그리고 더 많은 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이코스는 모든 “종들”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를 참고하여 기도회를 계획하는 분들은 모든 피조물의 집을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의 뜻을 담아 기도처에 “아브라함의 천막”을 세워보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지와, 이를 집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 속 다른 “족속”들을 상징할 수 있는 자연물도 기도회장에 비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자는 일반 글씨체, 회중은 굵은 글씨체)

### 초대

이 땅과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소리와 생명이시며, 만유의 창조주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이시며, 천사들이 노래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알려진 것과 숨겨진 모든 신비의 놀라운 빛이시며, 살아 있는 모든 것에 깃든 생명이십니다.*

(힐데가르트 폰 빙엔, 13세기)

### 인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나셨고,



요셉은 조부 헬리로부터 났고,  
 헬리는 사십 대 조상 다윗으로부터 났고,  
 다윗은 이새로부터 났고,  
 이새는 조부모 룻과 보아스로부터 났고,  
 보아스는 첫째는 라합 둘째는 다말을 통해 유다로부터 일곱째 손자로 났고,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났고,  
 야곱은 리브가와 이삭으로부터 났고,  
 이삭은 사라와 아브라함으로부터 났고,  
 아브라함은 조상 노아로부터 났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은 증조 에녹으로부터 났고,  
 에녹은 고조 하와와 아담으로부터 났고,  
 하와와 아담은 이 땅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간 각자 자신의 조상 또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곁에 있는 이웃과 이에 관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요르단 강으로 흐르는 갈릴리 호수 인근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특정한 삶의 터전으로부터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각자 삶의 터전으로부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고향”이라고 하면 하면 떠오르는 곳과, 그곳 주변의 생태계를 떠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떤 곳인지 곁에 있는 이웃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삶의 터전으로부터 모든 피조물과 이들의 집인 지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 시편의 노래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천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나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집을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바카의 골짜기,  
즉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생길 것이며  
이른 비가 내려 이를 웅덩이로 덮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 지구에 대한 감사

모든 피조물의 힘이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 백성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성령을 기도합니다. 저희가 동서남북에 있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돌보도록 불려주십시오.

저희는 삶의 순환 안에서 당신께서 저희에게 일러주신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성령이여 오소서.

(사방으로 돌아서며 아래의 기도를 드립니다. 동쪽부터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각 방향의 기도를 드립니다.)

동쪽을 바라보며 :

동쪽은 해가 뜨는 장소입니다. 아침의 아름다움이 있고, 거룩한 하루가 탄생할 때 구도자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목표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생명과 내면에 있는 생명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은 아침이 다시 올 때 빛과 영광으로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남쪽을 바라보며 :

남쪽은 성장의 장소입니다. 지구에서 지혜가 있는 곳입니다. 지구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 자신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의 심장을 뛰게 하였기에, 저희 발아래 있는 거룩한 대지에 저희의 경외심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이제 서쪽을 바라보며 :

서쪽은 통찰의 장소입니다. 종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모습을 닮고자 하는 목표가 시작된 곳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평화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북쪽으로 돌아서며 :

바람과 눈비로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께, 그리고 저희에게 영감을 주러 오시는 성령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켈리 셔먼 콘로이 “창조 기념하기: 토착민들을 기리며”에서 인용)

## 찬송

하나님을 창조주로 찬미하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가능하면 참석한 이들의 교회 전통이 모두 공유하는 노래를 찾으십시오

## 애통의 노래

“사랑하는 주님, 찬미받으소서. 누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 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생색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아름다운 찬가에서 우리 공동의 세계가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피조물들이 저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압받고 황폐해진 땅도 가장 버림받고 혹사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땅은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로마서 8장 22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백합니다.

(「찬미받으소서」 1-2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머리를 기댈 곳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의 지배하려는 욕망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인류 가족이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 위생 시설, 개인적 위생을 위해 품위 있는 장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자비를 기도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땅과, 흙과, 물과, 공기를 오염하여, 많은 주거지가 파괴되었고, 수백만의 생물종이 집을 잃었습니다.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자비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선물을 파괴하고, 토착민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지구와 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빼앗았습니다.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자비를 기도합니다.

겨자씨는 위대합니다. 그 가지에 많은 것을 깃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료 피조물들을 서로

돌보고 충실하게 환대하는 대신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했습니다.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자비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먼지에서 왔음을” (창세기 2:7)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성분으로 빚어진 몸을 지녔고, 지구의 거룩한 공기로 호흡하며, 지구의 거룩한 물로 생명과 활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를 약속과 부르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려는 욕망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세계를 가꾸고 돌보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길 기도합니다.

치유하고 보존하는 올바른 관계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을 돌보시는 성령으로 저희를 밝혀주십시오. 아멘.

## 성경 봉독

이 유인물에서 제공하는 성경 독서를 참조할 수도 있고, 기도회의 특별한 주제를 반영하는 본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독서는 창조절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찬송

창조의 다양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가능하면 참석한 이들의 교회 전통이 모두 공유하는 노래를 찾으십시오.

## 신앙고백

우리는 모두 창조주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창조주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숨 쉬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 계시며,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는 성령께 속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이 숨 쉬고, 성령 안에서 진리가 살아 있으며, 그 하나님의 숨결이 언제나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이고, 셋이면서 하나이신 삼위일체께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원받았으며,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페르 할링)

## 봉헌

생태 복원 또는 기후 정의와 관련된 연구나 선교를 위하여 헌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사는 곳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그 지역의 식물이나 동물을 상징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 중보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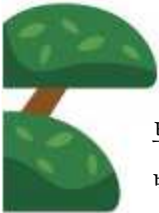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의 선물을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모든 형태의 생명체를 길러주며, 그 위에서 우리를 걷게 하는 어머니 지구를 생각합시다. 토양, 물, 생태계에 생명을 주는 광물, 곰팡이, 박테리아를 생각합시다. 지구를 더 존중하며 그 위에서 걷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를 위해, 또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의 건강에 자신의 건강과 생계가 의존하는 전 인류를 떠올립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원래 삶의 터전으로부터 떠나야 했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 지하수, 호수, 강과 개울처럼 세상의 거룩한 물과, 물에 사는 생명, 또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주는 피조물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세상을 채우는 식물들을 기억합니다. 지층 아래로 뻗는 뿌리와 채소와 지층 위로 뻗는 들꽃과 약초와 덩굴과 모든 식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좋은 열매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숲의 큰 나무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어 다니고, 걷고, 헤엄치고, 날아다니는 우리와 같은 동물을 생각합니다. 먹이가 되어주는 동물, 노동과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동물, 우정과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동물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새들을 생각합니다.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서 전달자가 되는 깃털이 달린 새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받는 공동체에서 서로 생명을 지켜주는 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면 옥수수, 콩, 호박은 함께 자라면서 영양분을 주고, 보호해 주고, 지탱해 주는 “세 자매”입니다. 이 관계는 창조주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기 당신의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이 보내는 곳

으로 가게 하시어, 저희의 존재와 행동을 통하여 당신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걸으시어, 변화의 바람을 마주하고, 선한 길을 걷게 도와주십시오. 창조세계를 보호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켈리 서먼 콘로이 “창조 기념하기: 토착민들을 기리며”에서 인용)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창조세계 모두의 기도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성령, 지구의 창조자, 고통의 인내자, 생명의 전달자  
현재도 미래에도 만물의 원천이며  
모두의 아버지요 어머니이신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온 우주에 빛나시며  
아버지의 정의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따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모든 피조물에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평화와 자유의 공동체가  
저희의 희망을 이루어 주고,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건디기 힘든 시련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뉴질랜드 기도의 책 He Karakia Mihinare o Aotearoa.에서 인용)

## 평화의 인사

우리가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 집에서 한 몸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창조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 용서, 은총, 정의의 표시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우리 안에 심어온 돌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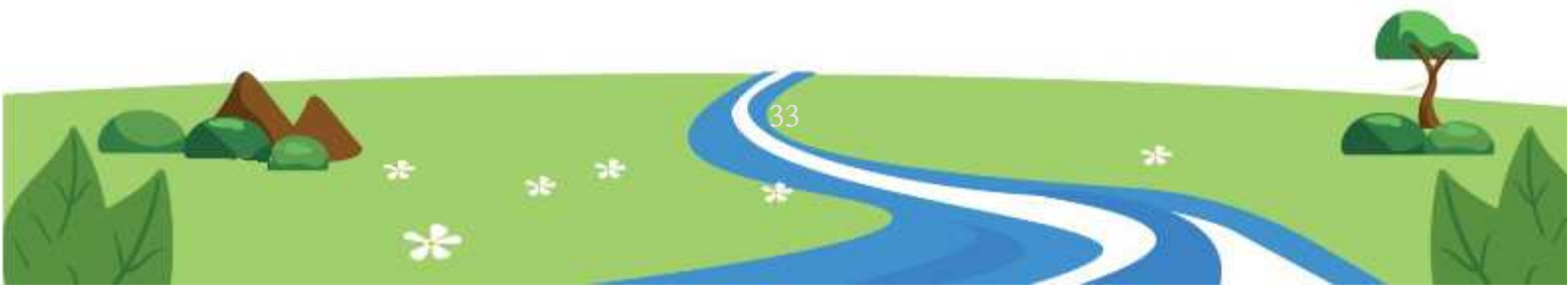
여러분은 이웃을 돌보고 평화를 나누라고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는 이 땅과 이 공동의 집에 함께 사는 피조물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시오.

(켈리 셔먼 콘로이 “창조 기념하기: 토착민들을 기리며”에서 인용)

## 축도

피조물이 춤추게 해 주셨고,  
들판에 아름다운 백합을 피우셨으며,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피조물 안에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CTBI Eco-Congregation Programme)



## 별첨 자료 2 : 지구 묵상을 통해 지역 생태계와 관계 맺기

지구 묵상은 한 대상을 바라보는 방법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경이로움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계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선함을 돌아보십시오. 올해 창조절 동안 지역 생태 환경의 한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혼자서도 단체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싶은 자연이나 농경지를 선택하십시오. 숲, 강, 자연과 접해 있는 일반 도로, 도시의 공원, 농부의 밭, 언덕 위, 이런 곳이나 이와 가까운 데서 편안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본인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게 할 거룩한 지혜를 초대하십시오. 준비가 되면 아래 질문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 1. 묵상하고 있는 자연이나 농경지에서 하나님의 현존 알아차리기

하나님은 이곳에 어떻게 현존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는 모든 생명체에 어떻게 실재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지질학적 시간 동안 이곳을 식물, 동물, 무생물, 무기물로 채우셨는데, 이들은 과거 오래전에 이곳을 집으로 불렀고 현재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곳에서 다른 피조물과 함께 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구에 살고, 이 장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동일한 탄소로 만들어졌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순환과 생명 과정에 의해 자라나고, 같은 창조주 성령으로 활기를 띠는 것을 깨닫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 2. 이 장소를 마련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곳의 생태순환 묵상하기

이곳은 어떤 영양 순환을 지원하는지요? 물을 걸러주는 분수령인가요? 영양분을 비축하는 열대우림이나 낙엽수림인지요? 질소가 가득한 초원이나 들판인지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녹지대인지요? 여기서 어떤 동식물, 미생물, 무기물이 보호되고 있는지요? 그들이 어떻게 존재 자체로 온 지구를 돕고 있는지요? 이 장소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제공하는 모든 것과 이 장소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 3. 이곳의 건강, 연약함을 관상하면서 느끼는 점에 집중하기

이 생태계는 건강한지요? 이 생태계에 어떤 질병이 닥쳐올 위험이 있는지요? 이곳 생태 균형 유지의 핵심은 무엇인지요? 서식지 건강 유지를 위해 보호할 생태적 지위와 다양성은 무엇인지요? 이곳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원인은 무엇인지요? 그 압박 때문에 당신의 동료 피조물이 집에서 떠나고 있나요? 이곳 건강에 달린 생명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이곳 균형에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 4. 장소의 특징 찾고, 휴식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여러 압박을 받고 있는 이곳의 휴식, 회복, 쇠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요? 이 장소가 자생적으로 회복하려면 무엇이 보존되어야 하는지요? 어떤 기능이 다시 복구되어야 하는지요? 피조물의 정당한 집인 이 장소가 복원되기 위해 어떤 다른 피조물이 필요한지요? 이 장소를 위해 기도하고, 이곳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청하십시오.

### 5. 자신의 응답 바라보기. 이 장소의 쉼을 요청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곳을 둘러보면서 확인한 바는 무엇인지요? 이곳을 돌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식별했는지요? 이 공동의 집의 휴식을 우선하기 위해 연민의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할 예정인지요?



### 별첨 자료 3 : 창조절 행사 체크리스트

이 확인표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단계표입니다. 요약하자면, 좋은 계획 세우기, 지지층 넓히기, 행사 설명하기, 행사 후속 조치의 단계입니다.

아래 사항은 기념 행사 준비 시 단계별 세부 사항입니다.

□ 함께 준비할 사람을 한 명에서 4명 정도 모으십시오. 이 행사 위원회는 창조절이 여러분의 교회를 폭넓게 지원한다는 점을 보증하기 위해 사제/목회자, 공동체 신자들과 일하면서 업무를 공유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 전반적 계획안을 작성하십시오. 제안해드린 행사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하거나, 다른 행사를 기획하십시오.

□ 사제/목회자, 공동체 지도자들과 대화 날짜를 잡으십시오. 모두 이 회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창조절에 대한 정보, 웹사이트 링크를 우선 공유하십시오. 모든 자료들은 [SeasonOfCreation.org](http://SeasonOfCreation.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회의를 시작하며 피조물 보호를 위해 이미 선행을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과 위원회가 창조절 행사를 개최하여 교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얘기하십시오.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기록하십시오.

□ 의견을 공유하며 받은 응답으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교회 행정담당자와 함께 행사 날짜, 시간, 위치를 정확히 결정합니다.

□ [SeasonOfCreation.org](http://SeasonOfCreation.org)에 행사를 등록하십시오. 등록하면 창조절 세계 지도에 행사가 표시됩니다. 저희는 이메일로 추가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조언과 동참이 더 필요하다면 교회 내 다른 지도자들에게 추가로 연락하십시오. 행사에 따라 내부 위원회, 교리 교육부, 성가 및 예배 담당자, 친목회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에큐메니칼 또는 여러 종교 간 행사라면, 예배를 함께 할 장소에 연락하십시오. 방문을 요청하고 각 교파 사제/목회자와 결정한 방법대로 계획을 제시합니다.

□ 계획이 마무리되면, 공동체 신자들과 공동 예배 장소 담당자에게 공지하십시오. 행사 시작 한 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참석률을 늘리고 많은 사람이 행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SeasonOfCreation.org에서 게시판 공지, 전단지 및 네트워크 서비스 게시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 며칠 전까지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준비하십시오. 모든 공동 주관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교회에 마지막 안내를 하십시오. 마당에 탁자를 준비하여 예배 후 전단지를 배부하고, 사제/목회자에게 공지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진행하십시오. 멋진 시간을 보내십시오.

행사 후에 모든 지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십시오. 신자들에게도 행사 결과와 다음 단계에 대해 공지하십시오.

행사 사진을 SeasonOfCreation.org에 공유하십시오. 전체 공개로 공유하는 사진들은,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할 것입니다.

SeasonOfCreation.org에 행사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별첨 자료 4 : 창조절 주제에 따른 성경읽기

9월 5일

오이쿠메네(Oikumene) :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집

잠언 22:1-2, 8-9, 22-23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얹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 주시고, 그들을 노략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시편 125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별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별 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기를!

야고보서 2:1-10, 14-17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 마가복음 7:24-37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기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 참고 :

- 그리스어로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는 '경제'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세계적 관점으로 보면 '지구의 살림살이'를 뜻합니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집을 만든다는 근본적 의미를 지닌 경제의 중요성을 오늘날 얼마나 다른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요?

- 잠언 22장과 야고보서 2장은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이의 편에 서실 것이며 가난과 불평등은 우리의 경제 활동이나 경제 체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 화석연료를 부주의하게 사용한 결과로 전 세계의 빈곤층과 소외계층이 불안과 재난, 고통을 받는 기후불평등의 세상에서 '기쁜 소식'(복음)은 무엇인지요? 그런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기쁜 소식이 가능할까요?

- 야고보서 2장 6절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라는 구절은 '최고 부자'만을 겨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상적인 착취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에 기반을 둔 편리한 생활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 모르는 듯 행동하며 안락하게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겨냥한 것인가요? 이들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 마가복음 7장 28-29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당신께 던지는 반박을 칭찬하고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불평 등에 관한 문제가 있는지요?

9월 12일

오이콜로지에(Oikologie) : 지구에서 나오는 지혜

잠언 1:20-33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 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 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피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시편 19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 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 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 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막을 쳐 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 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알이 알겠 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 지 않도록 막아 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 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 야고보서 3:1-12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 하여 우리는 말의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한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계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걸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 물을 낼 수 없습니다.

### 마가복음 8:27-38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 참고 :

- ‘오이코스’는 단어 ‘생태학’의 어원인데, 이는 우리를 포함한 유기체 서로와 그 주변의 관계를 다루는 과학입니다.

- 지혜는 잠언에서 여성으로 의인화되는데, 창조 때 존재하며 창조에 관여합니다. 신학자들은 지혜가 그저 문학적 표현인지, 성령을 나타내는지, 혹은 인간이 되시기 전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등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가 어느 관점을 택하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세계인 자연(열왕기상 4:29-33)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연구를 통해 가까워집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두 가지 책’인 자연과 성경의 개요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까요?

- 잠언 1:26-30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 (주로 생태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파멸될 건지 일러 줍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예를 들 만한 것이 있나요?

- 야고보서 3:7-12의 생생한 이미지는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의 혀를 다른 자연물에 비유합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에 더 부자연스럽고 해로운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는지요?

- 마가복음 8:34-35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태적으로 많은 손상을 입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요? 중남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기득권에 대항하다 목숨을 잃은 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 마가복음 8:36-3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이 구절은 ‘영적’ 복음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 진리이신 지혜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물질주의에 대한 도전인지요?

9월 19일

창조세계를 세우며 평화 만들기

잠언 31:10-31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맞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 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역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퍼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퍼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흥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 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 시편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쪽정子和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 야고보서 3:13-4:3, 7-8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 마가복음 9:30-37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열두 제자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 참고 :

- 평화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람, 자연, 하나님간의 관계가 크게 깨어진 분열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시는데, 죄의 용서를 통한 영적 평화 뿐 아니라 모든 파괴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도 주러 오십니다.

- 보통 '평화'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shalom'은 하나님, 자아, 가깝고 먼 이웃, 그리고 지구와 그 피조물이 모든 차원에서 회복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믿음, 정의, 평화 구축이 서로 엮인 '좋은 삶'의 통합적 관점이며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상적인 아내상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아내가 가족, 가난한 사람들, 땅, 살림살이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번창하도록 어떻게 일하는지 보십시오! 평화의 중재자, 가정을 보살피는 사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은 아주 실제적인 지역 용어로 표현된 아름다운 호칭의 예시들입니다.

- 지난 주일의 주제인 '지혜'를 다루며 야고보서 3장 17-18절은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마태 5,9)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특히 불평등과 안정되지 못한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이 세상에서, 세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모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 오늘 마가복음 9:36-3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일이 당신 자신을 받아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기후 불안과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더 효과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응답하는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9월 26일

## 지구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에스더 7:1-6,9-10; 9:20-22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यो?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यो?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뵈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겨레를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겨레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 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그 때에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쉰 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 때에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모르드개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 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 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 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개는 그 이틀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 시편 124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한였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 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 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야고보서 5:13-20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 마가복음 9:38-50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 참고 :

- 기후불평등과 환경혼란에 대한 대응이 캠페인이나 옹호 같은 행동주의로만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는 행동주의가 우리를 보존하고 새롭게하는 영성에 깊이 뿌리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권고합니다.

- 야고보서 5장 13절은 “여러분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어서 16절에서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5:16b)라고 말하며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여 소출을 얻는 이야기(5:17~18)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지향으로 기도하는지요? 우리는 가뭄이나 홍수, 폭풍, 토양 침식으로 파괴나 재앙을 겪는 사람과 장소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고 있는지요? 또한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 26차 COP에서 정치적 진전이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대중의 취향을 따르기보다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연민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는지요?

- 에스더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 정치적 과정의 중심에 서서 정의와 구원을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고, 사리사욕에 도전하고, 기후 피해자와 자연 자체를 변호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할 수 있는지요?

- 마가복음 9장 42절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최근 영국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청년 중 90%는 기후문제를 현대의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 90%의 젊은이들은 교회가 기후 변화에 대해 충분히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일 교회가 기후 비상사태에 대해 기도하고 전파하고 행동하는 속도가 느리면, 이 구절은 우리가 젊은이들이 신앙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을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울며 회개하고, 기도와 단식하며, 목소리를 내어 외치고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0월 3일

미래의 집과 희망

욥기 1:1; 2:1-10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나?"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 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 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잣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 시편 26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살살이 살펴보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 히브리서 1:1-4; 2:5-12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 마가복음 10:2-16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 참고 :

- 복음은 3주 연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이들의 자리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4-15절에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고 하시며 아이들과 그 위치(state)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기후와 생태적 붕괴를 해결하지 못해 가난하고 불안정한 세상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깊은 불안과 절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고, 그들처럼 신뢰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 희망은 절망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굳은 약속으로 확실한 미래의 희망을 말해줍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고통 속에서 희망을 스쳐가는 빛이나 표징으로만 본다면도 여전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의 빛 아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날 모든 것이 가득 찬 영광 중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에 다가올 진리의 빛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 히브리서 1장 1-4절과 2장 5-12절은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고(1:2),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시는 분입니다(1:3). 그는 ‘만물의 상속자’(1:2)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2:9)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피조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어 영광 중에 옥좌에 앉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2:10) 합니다.

- 히브리서 2장은 또한 우리가 믿는 이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에 들어, 거룩하게 되었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만물을 우리 발아래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2:7-8, 시편 8 인용).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피조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반영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 실패했지만, 로마서 8장 19절 ‘사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을 보면, 교회(하나님의 ‘아들딸들’)는 다시 한 번 피조물의 공동체 안에서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깊고 겸허한 신비이며 엄청난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번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날짜 : 2021년 8월 22일

본 안내서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송다윗 회원의 번역을 바탕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번역본을 참고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www.greenchrist.org](http://www.greenchrist.org)

[greenchurch@hanmail.net](mailto:greenchurch@hanmail.net)